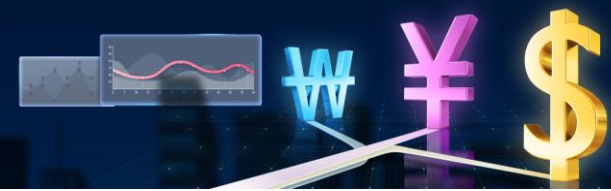


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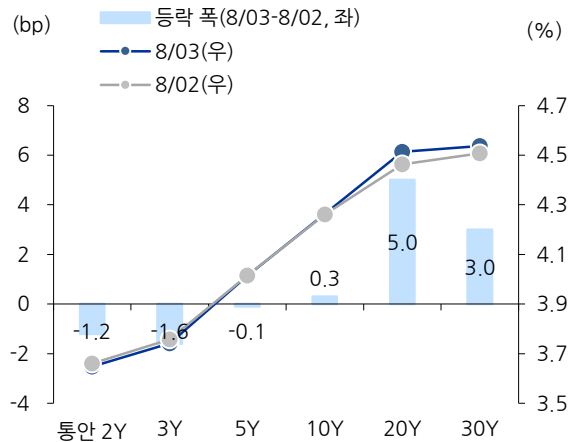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RA 차영후_02)368-6138_yhcha@eugenefn.com

Fixed Income

(단위: %,bp, 톱)

	8/3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3.742%	-1.6	-12.3
	한국 국고채 10년물	4.264%	0.3	-6.9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52.2	50.3	46.8
해외 채권	3년 국채 선물(KTB)	103.30	7.0	42.0
	10년 국채 선물(LKTB)	105.86	4.0	69.0
	미국채 2년물	4.240%	-5.2	-8.3
	미국채 10년물	4.679%	-5.8	2.9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43.8	44.5	32.6
	독일국채 10년물	3.170%	-5.5	1.6
	호주국채 10년물	4.928%	0.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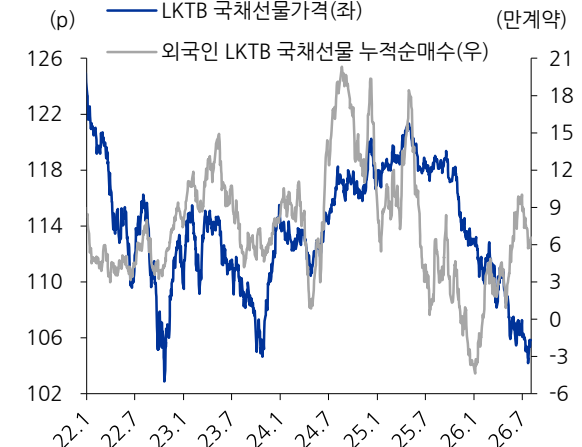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국내 채권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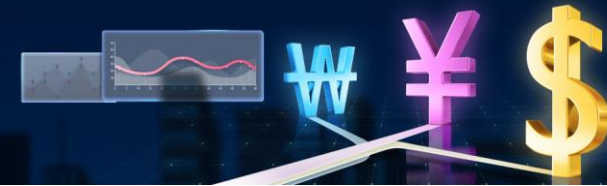
- 국내 채권시장 방향성 엇갈리며 혼조 마감.
- 개장 초 상승 출발한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이어, 외국인의 3년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수 등으로 중단기 금리 하락.
- 특별한 국내 재료는 없었던 가운데, 마-일 당국의 엔화 개입에 따른 엔화 강세에 연동하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것도 긍정적 요인. 이후 일본 장기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잔존, 국고채 30년물 입찰을 앞둔 우려 등으로 장기금리는 상승.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 국제유가 급락 영향.
- 오전 발표된 미국 ISM 제조업 PMI는 시장 예상치 상회 및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금리 일시적으로 상승. 특히 하위지수 중 고용지수 개선은 양호한 고용시장을 나타내 채권에 비우호적.
-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 중이며, 이란이 좋은 문서에 서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했음. 이란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지난 주말 이란 공습 취소 발표 이후 전쟁에 대한 안도감 등이 지속되며 금리 하락.

자료 출처: 연한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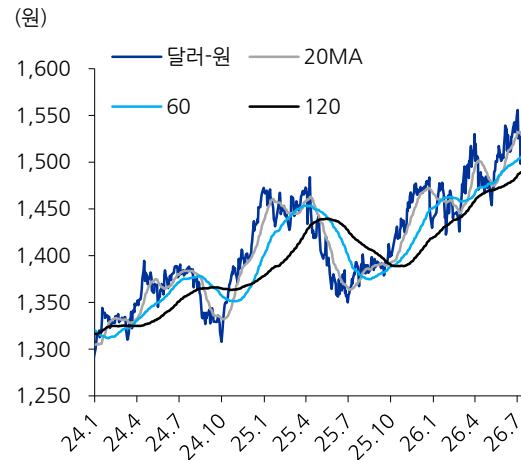


FX & Commo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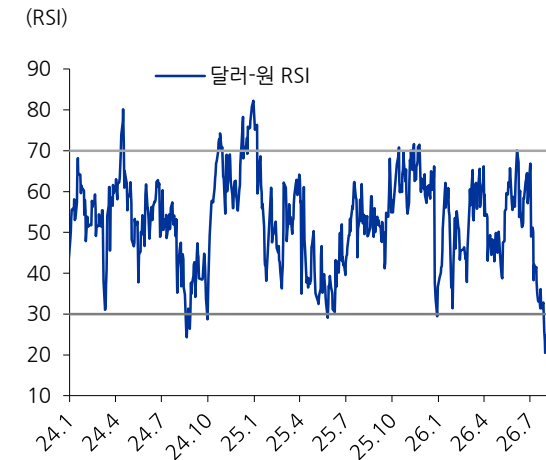
(단위: %, \$)

		8/3일	1D	1W	YTD
환율	원/달러	1,429.80	0.4%	-2.6%	-0.6%
	달러지수	99.95	0.1%	-1.6%	1.7%
	달러/유로	1.15	-0.2%	1.2%	-2.0%
	위안/달러(역외)	6.76	0.1%	-0.1%	-3.2%
	엔/달러	157.18	-0.1%	-4.0%	0.3%
	달러/파운드	1.34	-0.4%	1.1%	-0.2%
	헤알/달러	5.09	0.2%	-0.8%	-7.8%
상품	WTI 근월물(\$)	80.34	-5.1%	-2.7%	39.9%
	금 현물(\$)	4,054.97	0.2%	-0.6%	-6.1%
	비트코인(\$)	64,030	2.2%	-1.4%	-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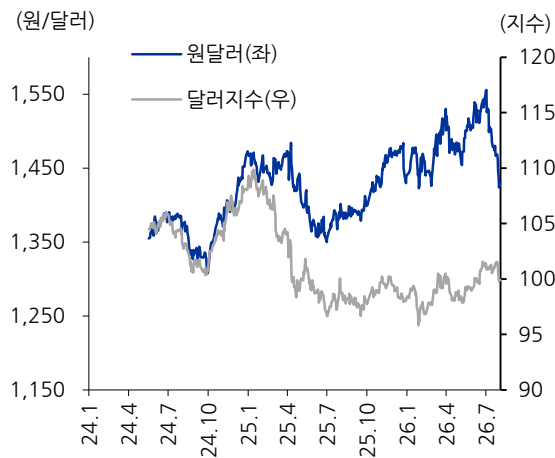
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은 韓·美·日 외환당국 환시 개입 경계 속 +5.80 원 오른 1,429.80원에 마감(야간 1,429.50원).
- 원달러 환율은 1,437.5원에서 출발한 이후 한-미-일 당국 개입 경계에 상단 제한된 채 하락.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미국과 공조한 엔화 매수 개입 사실을 밝히고, 필요시 추가 공동 개입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발언해 엔화가 상승했고, 원화도 동조화 보이며 강세.
-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간 이란 인프라 공격을 취소하면서 중동 긴장감 완화됐고, 수출업체 네고물량과 외국인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며 달러-원 하방 압력으로 작용.
- 단기적으로 수출대금 환류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기대 유효하나, 내국인 해외자산 선호가 중장기적 환율 상방 요인으로 존재. 환율 단기 낙폭 확대(7월 -120원) 된 점 고려할 때 추가 하락 여력이 크지 않을 가능성.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인덱스는 견조한 경제지표와 미국이 약달러를 원하지 않는다는 관측에 소폭 상승(DXY +0.1%).
- 美 7월 ISM 제조업 PMI는 55.6으로 전월비 2.3p 상승. 고용지수가 52.8을 기록(전월: 49.7)하며 2023/9월 이후 처음 확장 국면 전환되는 등 세부항목 또한 긍정적으로 발표되며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
- 한편 미국이 '유로화 매도-엔화 매수'로 개입한 것이 달러 약세를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달러 가치를 지지.
- 이번 미-일 공조 개입이 달러에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중동 협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변화와, 8/7일 발표되는 美 7월 고용보고서에 따라 달러 방향성 결정될 전망이다.